하나님의 귓속말

(마태복음 16:13~20)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귓속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귓속말'
귓속말은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한다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도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임의 주도적인 인물이 다른 사람들을 젖혀둔 채 나에게만 귓속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 친분은 더욱 두드러지고 주목받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귓속말쟁이십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귓속말은 배우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생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는 사람은 산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귓속말을 못 듣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의 귓속말 듣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고 대답하였습

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예수님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이 대답에 놀라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교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간이 무너지거나 더럽혀진다면 종교로써의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무너지거나 불순물이 섞여 더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행색은 항상 초라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도시였습니다. 본래는 대단찮은 지역이었으나 헤롯 빌립에 의해 확장되고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이 지어졌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솔하는 군대의 본부가 위치하여 로마의 문명을 전파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선진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가장 짙게 풍기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황제의 권위나 도시의 화려함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이 주는 강렬한 위압을 뚫고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도들을 거느린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의 상황을 비교해보자면 환경적 차원에서 전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귓속말로 속삭여주신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귓속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백이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베드로의 마음에 귓속말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보고 있는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천지를 지은 나의 아들이다."라는 귓속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잠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던 도중 사기꾼 장사치와 시비가 붙게 되자 사기꾼이 무리들을 모아 왕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왕자는 이들에게 위엄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왕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기꾼 무리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임금님이 그곳에 행차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이 사기꾼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라는 왕의 호통이 들리고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왕자를 군중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 계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귓속말을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귓속말의 내용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귓속말을 하신 것을 듣고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듣고 따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교에 가면 교리를 공부하여 목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위해 세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하나

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귓속말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참 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일까요?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무당도 강신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신이 내려서 신병을 앓게 되면 내림굿을 하여 강신무당이 됩니다. 세습무당은 이러한 강신무당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신무당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무당 짓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세습무당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무당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통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당의 신내림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귓속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백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흉내 내는 고백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귓속말이 마음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단지 스승이나 선배들로부터 전해져온 풍월을 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구분법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귓속말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 지식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억제되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귓속말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똘똘 뭉쳐있어서 견고하기에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삶에서 음부의 권세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고백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을 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8절의 음부의 권세라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πύλαι ᾅδου로써 '음부의 대문(the gate of hades)'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로 번역된 하데스(ᾅδου)는 죽은 자가 들어간다고 믿어지던 곳으로써

구약 시대에는 스올이라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이러한 음부의 정의가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육체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음부의 대문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기운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핵무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몸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죽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두려워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부의 권세 즉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귓속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마음에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고백은 사람들이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을 들은 후에 곧 시험에 빠져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귓속말을 통해 알게 된 고백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단번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귓속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는 칭호에는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기능적인 면에서 이해하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입니다. 마음에서 전혀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그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귓속말은 최고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육체를 통해 접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그것들을 만날 수도 가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하나님의 귓속말에는 마음이 정말로 좋게 여길 가치는 하늘에 있으며 예수가 그곳으로 인도하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좋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 마음에서 바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의 아들의 자리로 끌어오실 자들에게 귓속말을 들려주십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귓속말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편의 아들의 자리로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도록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귓속말은 전해집니다.
요즘은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제가 설득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귓속말을 해주신 사람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인격적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들려주신 그 내용을 따라 마음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과정으로써의 길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 생활화는 출세가도입니다. 출세는 노는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구 촌구석에서부터 천국으로 노는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생활화이기에 출세가도인 것입니다. 이 출세가도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의 귓속말의 증거가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귓속말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십자가 생활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렵고 육체로 만나는 사람과 일과의 관계에서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었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기가 반복된다면 이윽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이 반가워지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 향하려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기를 반복함으로써 하늘을 향하려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귓속말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천지를 지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천국을 향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귓속말로 들려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늘을 그리워하여 땅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귓속말을 들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버러지 같은 자들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살게 하신 은혜와 축복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귓속말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생활화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